



오늘의 말씀 - 화 (출 10:1-11)

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5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7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8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9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 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 다
10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본문 이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

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바로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적용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이유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열 가지 재앙의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지금까지 일곱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이 당한 열 재앙을 보았고, 출애굽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등,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롬 1:20-롬 1:21]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만큼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 위에, 성경과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복할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알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싸워 이기며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

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10:12-20)